

# 도시탈출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구 동 회\*\*

## The Influence of Urban Exodus on the Change of a Way of Life\*

Donghoe Koo\*\*

**요약** : 살 곳을 정하는 문제, 즉 거주 문제는 노동하는 곳, 교육을 받는 곳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도시탈출은 도시인들의 거주와 노동, 거주와 교육을 연계하는 양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거주와 노동, 거주와 교육의 연계 양식을 통하여 도시탈출이 이주자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도시탈출 이주자는 도시를 떠나더라도 도시의 유익함과 편리함, 그리고 시골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동시에 향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도시탈출로 인하여 도시 기능(노동, 교육 등)에 대한 이주자의 접근성은 불리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도시탈출 이주자는 “도시 세컨드홈을 통한 가족의 거주분열” 또는 “가구주의 통근과 자녀의 통학을 연계하는 양식”을 선택한다.

주요어 : 도시탈출, 생활양식, 세컨드홈, 통근 및 통학

**Abstract** : As a household's residential location is closely related to its workplace and place of education, the urban exodus of city dwellers changes their ways of commuting to workplace and attending school.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urban exodus on the change of a way of life through relations between residential location and modes of commuting. Despite moving to the countryside, exurban migrants still want to experience rural health without abandoning the city lifestyle. However, they are faced with various difficulties in commuting to workplace and attending school, because suburban and exurban areas have poor accessibility to the central city.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most of them choose “the residential segmentation of the family” through which the head of the family commutes to the city from his or her family home in exurban areas and children go to school from their second home in the central city, or try “to link commuting to workplace with attending school”.

**Key Words** : urban exodus, a way of life, second home, commuting to workplace and attending school

### 1. 서론

18세기 영국 시인 William Cowper는 “신은 시골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읊었다. 근대철학을 세움으로써 인간주체가 신으로부터 ‘철학적으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처럼,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공간, 즉 자연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원주택현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대도시 중산층의 도시탈출(urban exodus)<sup>1)</sup>은 인간이 만든

도시를 떠나 신이 만든 공간, 즉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편리함과 시골의 쾌적함을 동시에 향유하려는 현대 도시인들의 욕구는 도시탈출이라는 새로운 이주의 흐름을 낳고, ‘전원’ 담론은 일상생활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자연으로 회귀하고픈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자연회귀의 신화’를 실현하려는, 신이 만든 공간으로 회귀하려는 도시인의 욕구는 언제나 ‘인간이 만든 공간을 떠나려고 하면서도 인간이 만든 공간을 버릴 수 없는 딜레마’에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감정평가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Korea Appraisal Research Institute) donghoe@dreamwiz.com.

빠져든다(구동회, 1997).

사회지리학에서 기본기능(Grundfunktionen) 또는 존재기본기능(Daseinsgrundfunktionen)은 '모든 사회계층에 내재하고 통계적으로나 시공간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공간에 작용하여 표출되는 인간의 기초적인 존재표현, 활동, 그리고 행동'을 의미하며, 이에는 공동생활, 거주, 노동, 급양, 교육, 여가활동 등이 포함된다(박영한·안영진(역), 1998, 125). Leng(1973)의 주장처럼 기본기능들을 그 가치에 따라 등급화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생활에서 거주, 노동, 교육 등의 기능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및 교육은 주거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본활동이며, 중심도시와의 관계에서 도시탈출 이주자의 통근 및 통학문제는 전원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적 체계와 공간적 구조는 한 가족이 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노동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기본적 욕구가 쉽게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 현대사회의 현실이다.

살 곳을 정하는 문제, 즉 거주 문제는 노동하는 곳, 교육을 받는 곳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도시탈출은 도시인들의 거주와 노동, 거주와 교육을 연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거주(집)와 노동(일터), 거주(집)와 교육(배움터)의 연계 양식을 통하여 도시인의 도시탈출이 이주자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탈출과 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개념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다음으로 도시탈출 이주자가 거주양식과 통근 통학양식의 측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도시탈출과 생활양식론

### 1) 생활양식 개념의 형성

일반적으로, 생활양식(genre de vie: a way of life)<sup>2)</sup>은 "기능적으로 조직된 통일적인 생활패턴"

(Johnston, et al., 인문지리학 사전, 3판 참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태적·기술적·사회적 구별 하에서 스스로 구축해나가는 꽤 영구적인 생활방식"(Harvey, 1989, 115)으로 정의된다. 생활양식 개념은 환경(milieu), 순환(circulation)<sup>3)</sup>과 함께 프랑스 Vidalian 지리학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Vidal de la Blache는 생활양식을 환경에의 적응양식이며,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관습화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Max Sorre는 Vidal의 생활양식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활양식 개념은 Vidal de la Blache가 지리학체계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생활양식은 특정한 환경에 적응한 사회유형이고, 관습화된 고정적인 것이다...생활양식은 농업생활양식과 도시생활양식으로 나누어진다(金在完, 1996, 136).

Sorre는 생활양식의 변화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Vidal과 차별성을 가지지만, 전체적으로 Vidal의 생활양식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의 생활양식은 집단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습관들의 복합체이다"(Sorre, 1948, 200)라고 정의한다. 습관의 복합체로서 생활양식은 최소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불변(immobilit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양식은 출현하여 변화하며 전성기를 누린다. 그리고 우리는 완숙기에 도달했을 때 생활양식을 특징짓는다(Sorre, 1948, 103). Vidal이나 Sorre에게 생활양식 개념은 "특정한 환경에 적응한 사회유형" 또는 "습관의 복합체"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것이다. 이에 비해 독일 사회지리학에서의 생활양식 개념은 보다 구체적이다. Keuning(1969)은 집단의 생활양식을 규정하고 사회지리학을 하나의 도식 아래 방법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하려 했으며(그림 1 참조), 이와 동시에 생활양식을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 또는 나아가 제3의 생업부분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Maier, et al., 1977, 41).

Bobek은 "생활양식", 즉 생활양식집단(Lebensformgruppen)의 개념을 한층 발전시키고 이를 사회지리학의 중심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는 생활양식을 주요 기능의 장에 의하여 서술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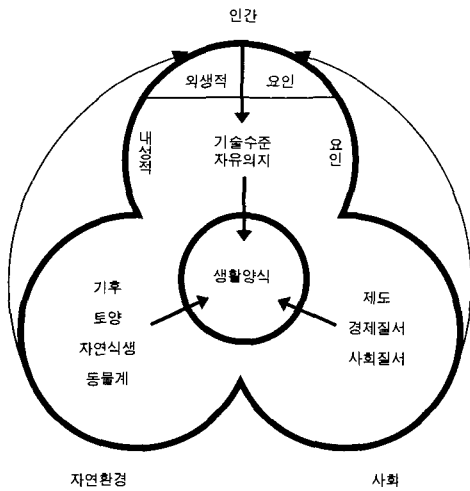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집단의 생활양식  
 자료: Keuning, 1969; Maier, et al., 1977, 40.

하였으며, 생활양식집단은 경관(자연적 공간) 상에서나 사회(사회적 공간) 속에서나 동일한 정도의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Maier, et al., 1977, 47). Bobek의 생활양식 개념은 Vidal이나 Sorre의 개념과는 구별된다. 프랑스 지리학에서 생활양식 개념은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바, 전체 사회복합체, 즉 Bobek이 말하는 사회를 의미한다(Sorre, 1948; Maier, et al., 1977, 47에서 재인용). 그러나 Bobek의 생활양식 개념은 보다 정교한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태도를 지닌 인간의 총체적 존재양상”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생활양식집단은 경관을 형성하는 힘을 지녀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개념의 응용가능성을 제한하였다(Maier, et al., 1977, 47).

한편 Buchholz(1970)는 “도시적 생활양식(städtische Lebensform)”이라는 개념을 정교화시켰다(Maier, et al., 1977, 48). 그는 인간의 활동과 의사결정은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상과 그 생활영역의 사회적 작용조직 속에 독특한 방식으로 투영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직업집단, 직업의 다양성, 주거형태, 제화와 서비스의 공급방식, 거주지와 직장 사이의 통행관계, 사회적·지역적 이동성, 선거에서의 행동방식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사례지역 분석을 통하여 Buchholz는 익명성을 지향하고 사회통제를 가급적 적게 받으려는 성향,

투표, 사회적 지위, 구매, 주거와 관련된 변화에 기여하기 대비하려는 모습, 중심지와와의 결합관계에서 확연하게 표현되는 상승된 욕구지향성과 같은 도시적 생활양식의 원리를 도출해냈다(Maier, et al., 1977, 48-49).

## 2) 지역생활양식론의 전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Wirth(1938)는 논문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urbanism as a way of life)”에서 도시생활양식의 주요한 특징을 논의하였다. Wirth는 도시를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개인들이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크고 조밀하고 영구적인 취락’ (Wirth, 1938, 8)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도시성에 관한 이론을 정식화하였다. 그는 규모, 밀도, 이질성은 도시생활의 주요한 특징을 설명해주는 두 가지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좁은 지역에 다양한 인구가 밀집함으로써 각각의 근린이 등질적인 인구집단으로 분리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거주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의 결여는 사회적 접촉을 낳고 이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패턴을 파괴하고 문화집변과 동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많다는 것(규모)은 개인적 다양성,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상대적 부재, 인간관계의 익명적이고 피상적이며 일시적인 관계로의 분절화를 의미한다. 밀도는 다양화, 전문화, 가까운 물리적 접촉과 먼 사회적 관계의 동시성, 현격한 대조, 복잡한 분리패턴, 공식적 사회통제의 지배, 심화되는 갈등을 수반한다. 이질성은 견고한 사회구조를 붕괴시키고, 이동과 불안정과 불안전을 증대시키며, 구성원의 교체율이 높고 서로 엇갈리며 거의 관련이 없는 사회집단을 양산하는 경향을 보인다(Wirth, 1938, 1).

교외화현상이 2차대전 이후에 대규모로 진전되면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 교외생활이 비노동자적 혹은 중류계급적인 지역생활양식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960 ~ 1970년대에는 생활양식으로서의 교외성(suburbanism as a way of life)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의 교외생활양식론은 “교외거주자의 생활이 도시 신중간층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상징한다”는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백옥인(역), 1994, 203).

Gans는 규모, 밀도, 이질성이 도시생활을 규정한다는 Wirth의 도시생활양식론을 비판하면서 도시성 개념은 주거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를 도시생활양식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한다.

Wirth의 도시생활양식에 대한 묘사는 도심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이런 지역에는 대체로 이질적인 인구가 거주한다. 일시적이고 이질적인 조건 하에서 사람들은 분절된 역할에 따라서만 상호작용을 하고 따라서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익명성, 비인격성, 피상성을 띤다. 따라서 Wirth의 도시성 개념은 인구수, 인구밀도, 인구의 이질성의 결과가 아니라 주거의 불안정성의 결과인 듯하다. 사실상 이질성은 주거의 불안정성의 결과이다. 주거의 불안정성은 어느 취락에서나 나타나는 것이며 그 사회적 결과는 어디에서나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도시의 생활양식과 동일시될 수 없다(Gans, 1968, 36).

나아가 Gans는 Wirth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을 비판하면서, 교외생활양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외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은 교외지역과 무관하다. 왜냐하면 교외에서는 물론 도시에서도 그러한 생활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한 교외적 생활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계급과 연령에 따라 가장 잘 구별되는 생활양식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모든 취락형태들에서 발견된다...[그렇다고] 생활양식을 연령과 계급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장소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교외 공동체와 교외적 생활양식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취락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행태 패턴 및 태도의 표현이다(Gans, 1968, 139).

Gans는 교외생활양식은 공간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연령과 계급의 결과이며 교외생활양식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역생활양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의 생활양식 논의와는 달리, 成瀬龍夫의 생활양식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생활양식 개념을 소비양식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成瀬龍夫는 생활양식 개념을 생산양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소

비양식 또는 생활양식은 생산양식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생활양식은 생산양식 개념에 포괄되어 있다는 이해가 맑스주의 경제학의 지배적인 통념이었으나 생활양식에 대한 생산양식의 개념적 포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생활양식의 개념과 분석이 생산양식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활양식을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 즉 생활양식을 생산양식의 對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成瀬龍夫는 생활양식을 “가족과 생활수단의 결합양식”으로 정의하고, 가족과 생활수단(소비대상과 소비수단) 그리고 이 양자의 결합을 매개하는 소비자서비스노동이 이러한 생활양식 개념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본다(백옥인(역), 1994, 35-36). 둘째, 생활양식의 지역성에 ‘명시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분리·대립은 인간의 정주공간을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해, 인간을 도시인과 농촌인이라는 두 부류의 지역성을 가진 인간형으로 만들고 각각의 사회적 생활양식으로서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만들어냈다(백옥인(역), 1994, 43).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농촌의 공업화, 상업화, 도시화에 의하여 도시생활양식이 농촌지역에 침투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생활양식의 구별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 것은 아니다.

19세기 이래 교외는 ‘도피의 장’이었으며, 오랫동안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적으로도 도시에서 분리된 ‘격리사회’,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녹지공간’이었다. 교외생활의 ‘신화’, 즉 쾌적하고 물계급적인 신중간층의 생활양식이라는 이미지가 빈곤, 열악한 주택, 생활환경, 거주지의 계급적 인종적 차별이라는 도시문제와 무관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낳게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외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과 다른 별개의 지역생활양식이 아니라 도시생활양식의 변종에 불과하다. 두 가지 생활양식은 서로 섞여 교외에서도 도시에서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오락이 표준화되어 똑같이 왜곡된 환경을 만들어낸다. 교외생활양식은 도시문제를 해소할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도시문제의 새로운 변종 - 교외지역의 인구급증, 공동소비 시설의 부족, 투근단, 자녀 양육

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 등 - 을 낳는 데 불과한 것이다(백옥인(역), 1994, 206).

이처럼 成瀬龍夫는 생활양식을 소비양식의 개념에서 파악하고 생활양식의 지역성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결국 “교외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의 변종이다”라고 결론지음으로써 지역적인 차원에서 생활양식을 파악하려는 그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교외 생활양식이 도시생활양식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도시생활양식의 아류로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 3) 도시탈출과 생활양식

사회성원의 존재양식은 그 구성영역에 따라 생산영역에서의 경제적 존재양식, 생활소비영역에서의 존재양식, 문화·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존재양식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백옥인, 1991, 550). 1990년대 이후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생산이 아니라 소비와 관련된 쟁점들이 보다 적실성이 있고, 계급이 아니라 생활양식이 전반적인 태도와 행동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정태환·한상근(역), 1995, 208). 주거입지를 정하는 문제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도시탈출을 감행하는 집단은 변화된 주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모색하게 된다.<sup>4)</sup> 생활양식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도시탈출의 동기는 복잡다단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1990년대 한국의 전원주택현상의 사회지리적 의미를 천착하기 위해서는 생활양식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도시탈출은 ‘물질적 생활양식(materialist lifestyle)에 대한 선호와 환경적 생활양식(environmental lifestyle)에 대한 선호 사이의 플레이오프전’이며, ‘대도시 산업경제의 노동구조와 소비패턴으로부터의 탈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탈도시적 생활양식은 성숙된 자본주의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도시탈출은 물리적·경제적 공간에서의 이동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상징적 의미(예컨대,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멀어진다고 인식하는 것)를 가진다(Jones, et al, 1984, 442).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듯, 생활양식의 개념도 생산에서 소비로, 이분법적 구분에서 보다 복합적인 구분으로, 정태적·고정적인 것에서 과정적·발전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분석적인 차원에서는, 생활양식 개념을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양식으로서의 생활양식으로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런 다음, 지역생활양식으로서 교외생활양식이라는 것이 도시생활양식과 구별되는 것으로 존재하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외생활양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전원주택현상의 배후에 내재되어 있는 교외생활양식(즉 도시 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생활양식)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자들은 교외생활양식을 구별짓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거나 교외생활양식을 도시생활양식의 변종으로 본다. 교외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도시생활양식의 아류로 평가하는 것은 생활양식 개념을 지나치게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계급·생산의 측면에서 생활양식을 논의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또는 도시화, 산업화로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으므로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더라도 도시와 농촌은 여전히 존재하며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 또한 구별될 수 있다.

어떻게 평가하든 도시탈출 이주자의 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이나 농촌생활양식과 구별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Sexton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떠나지만 그들은 도시를 버리지 않으며”(Sexton, 1995, 26), 양자를 공유하고자 한다. 도시탈출의 기저에는 중심과 주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깔려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전환이 아니라 현상적인 전환이다. 도시탈출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전원으로 회귀하는 도시인은 이미 도시생활양식을 소유하고 있다. 몸은 전원으로 회귀하지만 도시와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은 교외의 전원적 공간에서 탈도시적 환경이 가진 쾌적함과 도시적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동시에 향유하기 위해 도시를 탈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탈출은 어떤 식으로든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회 집단의 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공유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향유하고자 한다. 도시탈출 이주자는 도시 내에 주거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속하는 집단과는 상이한 생활양식을 추구한다. 그러나 전원지역에서의 생활양식이 도시생활양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탈출 이주자들의 교외 또는 시골에서의 생활양식은 도시생활양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생활양식이다.

### 3. 도시탈출과 생활양식의 변화

#### 1) 도시탈출과 거주양식

도시탈출은 전원적 생활환경을 찾아가는 인구이동의 흐름이다. 전원적 환경은 쾌적한 주거환경이기는 하나 도시적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도시탈출 이주자들은 도시적 편의시설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양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조건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전원주택이라는 탈도시적 주거양식은 대체로 198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중적인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초기에 전원주택은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95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권, 충청권으로 꾸준히 확산되어 왔으며 기타 대도시(광역시) 주변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구동회, 1998, 71).

주택형태에 따라 전원주택은 단독형 전원주택과 단지형 전원주택으로 나뉜다. 단지형 전원주택은 특정 건설업체가 전원주택을 집단적으로 공급하므로 단독형 전원주택에 비해 가시적으로 쉽게 확인된다. 전원주택 전문잡지의 추계에 의하면(그림 2 참조), 1993년까지 단지형 전원주택은 수도권 일대에 단 한 곳에 불과했으나 1994년 36곳, 1995년 114곳, 1996년 190곳으로 급증하였다. 1997년 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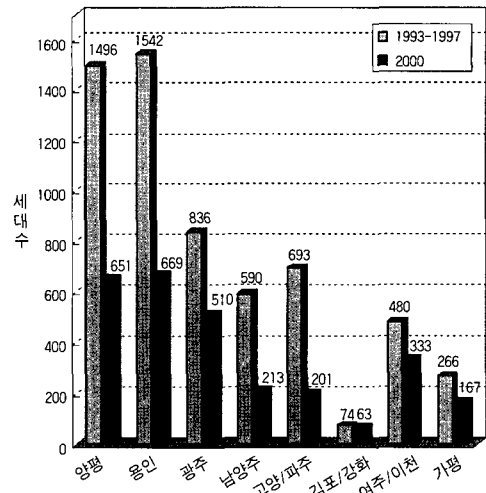


그림 2. 수도권 내 단지형 전원주택

주: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그리고 2000년에 분양되었거나 분양중인 단지형 전원주택의 세대수

자료: 구동회, 1998, 83; 여성회 등, 2000, 12, 123-131.

수도권에서 전원주택 전문업체들이 조성 분양하고 있는 전원주택의 규모는 모두 120여 개 단지에 1,800여 필지에 달하며, 강원권과 충청권에서도 각각 10개 단지에 120여 필지와 3개 단지에 90여 필지가 조성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 분양되었거나 분양중인 단지형 전원주택은 100여 개 단지에 2,800여 세대이다.

도시주택과 비교할 때, 단독형 전원주택과 단지형 전원주택은 기본적으로 전원적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양자의 차별성을 굳이 논의하자면, 전자는 전원적 주거환경이, 후자는 도시적 편의시설이 보다 잘 구비된 전원주택이다. 도시탈출 이주자들은 어느 정도의 도시적 편의와 전원적 쾌적성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단독형이나 단지형을 선택한다. 단독형 전원주택은 개별적으로 건축되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과 인접한 곳이나 마을을 경유하는 곳에 입지한다(외파로 격리된 장소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다). 단지형은 건설자본에 의해 새로운 주택상품으로 개발된 형태로 5~20채씩 건축되며, 기존 마을과 격리된 곳에 입지한다(구동회, 1998).

그러면 도시탈출을 감행한 대도시 주민은 거주양식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도시적 주거양식에서 탈도시적 주거양식으로 이주함으로써

유형	거주분열	역통근
상위중심지		
하위중심지		
비고	생활근거가 하위중심지에 있는 가족이 자녀 교육을 위해 상위중심지에 이차주거를 마련하여 거주분열	일자리가 하위중심지에 있으나 자녀교육을 위해 상위중심지에 생활근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로 통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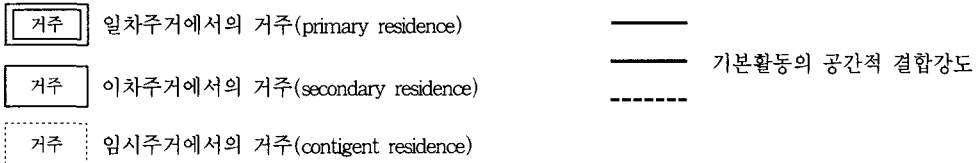


그림 3. 거주분열과 역통근(柳佑益, 1988)

써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는 각 개인들이 중심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형성해온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중심도시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긴밀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중심도시와의 관계는 대부분 그대로 잔존하므로, 중심도시로의 접근성은 전원주택 거주자의 통근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대도시 주민이 중심도시의 주택을 버리고 탈도시적 환경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김으로써 노동, 교육 등의 기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도시탈출을 감행한 도시인은 상위중심지에서 하위중심지로 이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활동 수행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새로운 거주양식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취락의 계층체계에 따른 가족의 거주분열”(그림 3 참조), 그리고 이로 인한 “도시 세컨드홈”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 중심도시의 주택과 비교하자면 전원주택이 입지한 탈도시 지역의 주택은 중심도시로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도시탈출 이주자들은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2주택(세컨드홈)을 두는 것이다.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 세컨드홈을 두고 있는 B씨의 사례, 그리고 남편은 도시의 세컨드홈에서 홀로 거주하고 주말이 되면 근교도시의 자택으로 가

서 생활하는 일본의 E씨 가족의 사례를 통하여 도시 세컨드홈의 필요성을 잘 알 수 있다.

B씨 부부(50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의 50평 아파트에 살다가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하여 1995년 이주하기로 했고, 산세가 좋은 양평의 단지형 전원주택(대지 110평에 건평 35평)을 분양받아 1996년 9월에 입주하였다. 서울 여의도의 아파트에는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거주하며, B씨 부부도 가끔은 서울에서 자녀와 함께 지내기도 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그가 서울로 통근을 하는 때에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통근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만 전원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이주한 이후 텃밭과 정원을 가꾸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 등 생활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大手町の 회사로 통근하는 E씨 가족(남편 40세, 아내 39세)은 자식을 둘 두고 있다. 최근까지 강동구의 2DK 아파트에서 살다가 맞이가 중학생이 되자 집이 좁아 보다 넓은 집을 구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통근 시간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지금보다 넓은 아파트를 찾았으나 원하는 규모와 가격의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였다...그리하여 池袋역 근처에 원룸아파트를 임차하고 熊谷市の 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정원이 딸린 신축주택을 구입하였다. 그 결과 집이 넓어졌고 가족들은 각각 자기 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환경(학교와 쇼핑 등)도 비교적 좋아 E씨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 E씨가 자택에서 大手町까지 통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매일 장시간에 걸쳐 통근하는 것이 고달파 주중(월 ~ 금)에는 池袋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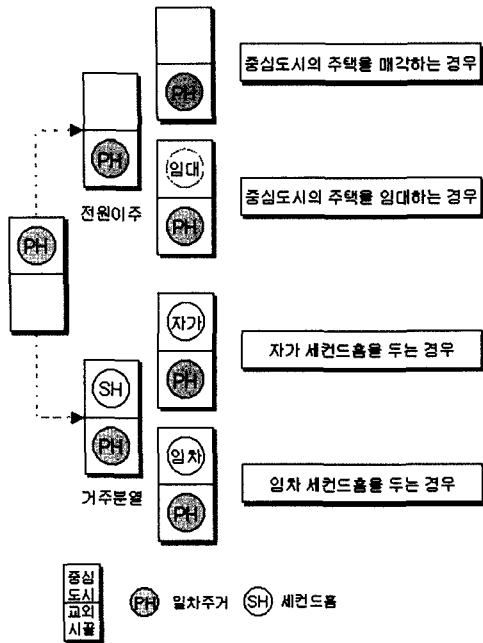


그림 4. 거주양식

근처의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금요일에 일이 끝나고 나면 가족이 기다리는 자택으로 돌아와 토요일에는 가족과 근처의 임대농원에서 채소를 가꾸며 한가롭게 보내며, 월요일 아침에 자택에서 회사로 출근한다(ニューハビテーション研究会, 1989, 36-39).

세컨드홈을 둘 것인가 여부는 중심도시와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가에 따라 결정되며, 중심도시와의 연계의 긴밀성은 “도시 세컨드홈”현상으로 표출된다. 그러므로 도시 세컨드홈을 두는 도시탈출 이주자는 “취락의 계층체계에 따른 거주분열” 또는 “기본활동의 공간적 분열”이라는 특이한 행동양식을 통하여 기회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셈이다. 가족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이러한 행동양식은 매우 비타협적이라는 점에서 극단적이고 중간적이지만 반드시 잠정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은 아니다. 상위중심지로부터 하위중심지를 향한 역통근 역시 ‘기본활동의 공간적 분열’이란 범주의 특이한 행동양식이다. 가족의 거주분열이든, 기본활동의 공간분열(역통근)이든, 그것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행동양식을 넘어 생활의 양식으로 정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柳佑益, 1988, 104).

도시탈출 이주자의 거주양식은 중심도시에 세컨

드홈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즉 중심도시에 세컨드홈을 두지 않고 완전히 교외나 시골로 이주하는 전원이주형과 중심도시에 세컨드홈을 둔 채 일차주거를 교외나 시골로 옮기는 거주분열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4 참조). 중심도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세컨드홈을 두지 않는 집단은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가장 약한 경우이며, 세컨드홈을 두고 있지 않지만 중심도시에 자가소유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집단은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현재로서는 긴밀하지 않지만 미래에 중심도시로 재이주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반면 중심도시에 자가소유 또는 임차한 세컨드홈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중심도시와의 연계가 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이다.

도시 세컨드홈은 도시 거주에서 교외 거주로 이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중간적인 거주양식이다. 근대 교외가 18세기 런던에서 최초로 등장할 무렵에도 이와 같은 중간적인 거주양식이 나타났었다. 18세기 들어 런던의 중산층이 급작스럽게 도시주택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거주양식인 교외주택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중간단계로 주말빌라(weekend villa)라는 거주양식을 선택하였다. 이들이 도시의 일차주거에서 주말빌라로 이주하면서 근대 교외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런던 부르주아지가 급작스럽게 도시의 타운하우스(townhouse)를 버리고 교외라는 완전히 새로운 주거형태로 이주했던 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간단계, 즉 주말빌라(weekend villa)가 있었다. 18세기 초부터 런던의 중산층은 대도시 주위의 그림 같은 시골지역에 ‘빌라’나 오두막집을 마련해 놓고, 전 가족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내려갔다’가 일요일 오전에 돌아오는 것을 관례로 삼았다. 상인 엘리트가 일차주거를 주말빌라로 옮기면서 근대 교외가 나타났다. 가족 가운데 여성들과 아이들은 런던과 완전히 분리되었던 반면, 상인들은 매일 개인마차를 타고 빌라에서 런던으로 통근하였다. 따라서 주말빌라는 전통적인 부르주아의 생활패턴과 교외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어주는 결정적인 교량이었다(박영한·구동희(역), 2000, 58).

런던의 중산층은 도시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도시를 탈출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새로 발견한 공동체의 목적은 도시에 비해 조용하고 전원적이고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특권적인 생활



을 영위하는 것이었다(Sexton, 1995).

중심도시에 거주함으로써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은 도시탈출로 인하여 대부분 상실된다. 현실적으로 탈도시적 주거환경이 도시적 편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심도시와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적 편익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굳이 세컨드홈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심도시와의 관계가 긴밀하거나 주변 지역에서는 공급받기 어려운 서비스를 요할 때에는 도시탈출로 인한 불편함(직장문제, 교육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컨드홈을 둔다.

통상적으로 세컨드홈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교외나 시골에 여가생활을 위해 마련한 별장과 같은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도시주택을 일차주택으로, 전원적 환경을 갖춘 주택을 제2주택으로 사용하는 양식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일차주거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별장이나 세컨드홈과 다르다. 또한 전원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양식은 기존의 교외(또는 시골) 세컨드홈과는 달리 도시 세컨드홈의 출현을 동반한다. 도시탈출 이주자는 중심도시와의 연계의 필요로 인하여 도시 세컨드홈을 두는 것이다.

## 2) 도시탈출과 통근통학양식

노동 및 교육은 주거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본활동이며, 중심도시와의 관계에서 도시탈출 이주자의 통근과 통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도시탈출 이주자가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전원생활에 적응해 가는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은 통근문제와 통학문제에의 적응이다.

물론 통근이 교외만의 특징적인 측면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근은 교외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상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도보 거리 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점에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통근자이다. 분명 통근은 도시생활과 대비되는 교외 생활의 독특한 특성이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Berger, 1968). 즉 통근 자체가 교외생활양식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시탈출 이주자의 통근은 도시 내 거주자의 통근과 비교할 때 통근통학양식의 측면에서 차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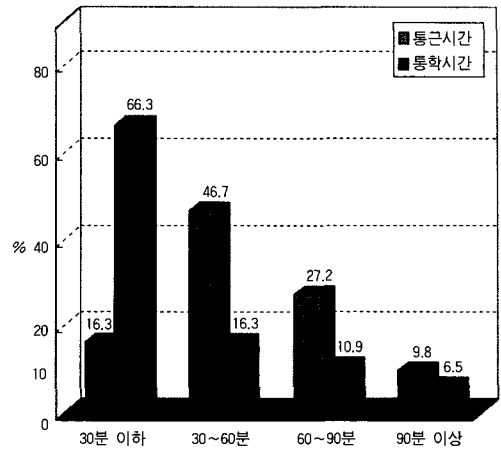


그림 5. 통근통학시간  
자료: 면담조사, 2002.

전원주택이 입지한 지역은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이라 사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통근통학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중심도시에 직장과 학교를 둔 사람들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통근시간과 통학시간의 연장을 뜻한다. 그러나 통근과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없이 길어질 수는 없으므로, 통근과 통학에 기꺼이 투자하려고 하는 시간에는 한계치가 존재한다. 전원주택으로 이주함으로써 통근 및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근자 및 통학자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치를 넘어선다면 그들은 새로운 통근통학양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통근통학양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도시탈출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양평, 용인, 광주, 남양주, 파주 등 수도권의 도시탈출 이주자에 관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주자의 통근통학시간과 통근통학양식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도시탈출 이주자의 통근통학시간(그림 5 참조)은 대부분 90분을 넘지 않는다. 전체 92가 가운데 통근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가 약 63%를 차지하며, 통학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는 약 83%를 차지한다. 통근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사례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1시간 30 - 2시간이 통근의 한계점인 듯하며, 통학시간의 경우에는, 대략 1시간 - 1시간 30분이 통학의 한계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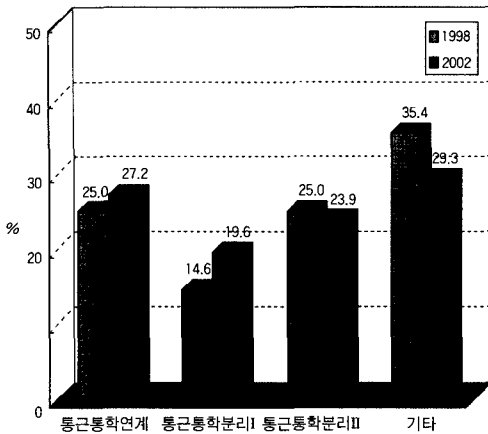


그림 6. 통근통학양식

주: 기타는 통근자 또는 통학자 없음  
 자료: 구동희, 1998; 면담조사, 2002.

듯하다. 도시탈출 이주자들이 중심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근시간이나 통학시간이 크게 길지 않은 것은 통근하는 가구가 스스로 생각하는 통근가능권역의 범위 내에서 이주지역을 선정했음을, 그리고 통학하는 자녀를 둔 가구가 통학자를 이주지역으로 전학시키거나 아니면 거주분열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 도시탈출 이주자의 통근통학양식을 분석해보면(그림 6 참조), 전체조사가구(92가구)의 약 27%가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고 있고, 약 44%는 통근과 통학을 분리하고 있다. 통근과 통학을 분리하는 가구 가운데 약 20%는 자녀교육문제로 도시에 세컨드홈을 둬으로써 거주분열을 하고 있으며(통근통학분리 I), 약 24%는 교외나 시골로 이주한 이후에도 도시에 거주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근과 통학을 분리하고 있다(통근통학분리 II). 도시탈출 이주자의 통근통학양식에서 가장 두드러진(특징적인) 양식은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는 형태이다. 이는 전원주택의 입지적 문제(접근성의 문제)와 교외지역의 불리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것이다.

교육문제가 도시탈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학을 하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차별적이다. 자녀가 초등학생인가, 중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에 따라 도시탈출을 할 것인가 여부와 도시탈출을 감행한 이후에 적용하는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이주결정에 있어서

자녀교육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도시탈출 이주자들은 이주와 동시에 자녀를 인근의 초등학교로 전학시킨다. 이들은 대도시의 교육환경이 훨씬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이하에서는 도시환경에서의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전원환경에서의 자연스러운 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원으로의 이주를 택한 사람들은 전원생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에게도 어린 시절에 전원생활의 경험을 누리게 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이미 중고등학생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도시탈출을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어진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가구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인하여 도시탈출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므로, 이른바 가족생애주기에서의 선택적 이주(selective migration)가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탈출을 감행한 이주자들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인근의 학교로 전학시키지 않고, 자신의 통근과 자녀의 통학을 연계하는 양식을 택한다. 매우 제한적이고 불편한 양식이기는 하나 당분간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자 한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는 이유는 도시생활양식을 가지고 도시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양호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심지어는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통학을 목적으로 거주분열을 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대학생에게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의 집을 함께 사용하거나 전세방을 얻어준다.

도시탈출은 통근 및 통학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 통근문제보다는 통학문제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도시탈출 이주자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단점으로 꼽는 것은 단연코 교통문제이며, 교육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다. 이는 자녀교육문제를 중대한 주거입지요인으로 간주하는 층은 애당초 이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주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직장문제와 교육문제 가운데, 교육문제가 직장문제보다 훨씬 민감하게 작용한다. 통근자의 비율이 상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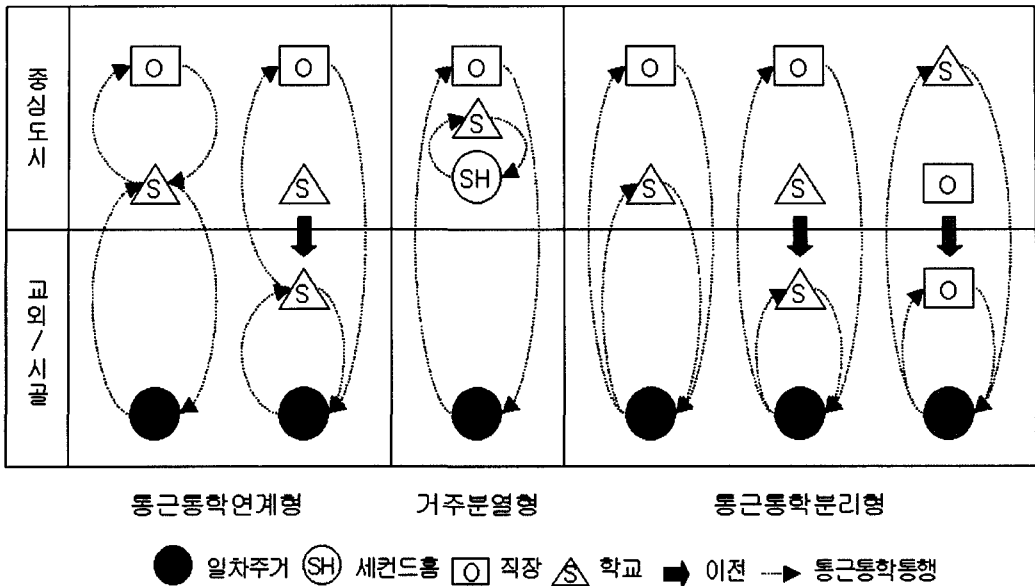


그림 7. 거주양식 및 통근통학양식에 따른 집단구분

를 차지하는 것에서 통근문제는 교육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복하기가 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 3) 거주양식 및 통근통학양식에 따른 집단구분

도시탈출 이주자는 거주양식 및 통근통학양식에 따라 통근통학연계형, 거주분열형, 통근통학분리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7 참조).

통근통학연계형은 세대주가 자녀를 중심도시의 학교로 통학을 시키고 중심도시의 직장으로 통근하거나, 인근의 학교로 전학시킨 후 자녀를 통학시키고 중심도시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경우이다.

K씨와 그의 아내는 각각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며, 강남까지 통근하는 데에는 1시간 ~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은 전교생이 120명이 고 한 학년당 하나의 학급이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가 약 20명인 대아초등학교에 다닌다. K씨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들을 데려다 준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2.5km이며 5 ~ 10분이면 충분하다(때로는 자전거로 통학한다). K씨는 오후 5시에 귀가하여 아들과 함께 양평에 있는 컴퓨터학원에 다닌다. '아이들은 시골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K씨는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게 할 예정이다(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거주분열형은 자녀는 중심도시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통학하고, 세대주는 전원주택에서 중심도시의 직장으로 통근하는 경우, 즉 통근과 통학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심도시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는 경우이다. 자녀들의 통학문제로 서울에 세컨드홈을 마련한 L씨는 거주분열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L씨는 서울 인사동에서 전자업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일산에서 어린이영어강사를 하고 있다. Y대학교(서울 신촌)에 다니는 큰딸과 E여고(서울 신촌)에 다니는 둘째딸은 신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문제가 염려스러워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전학시키지 않았다. 처음에는 두 딸이 신촌으로 통학을 하였으나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매일 하루에 두번씩 L씨의 아내가 신촌으로 왕래하는 것이 버거워 하는 수 없이 집을 따로 얻어 주었다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통학 자녀를 둔 도시탈출 이주자는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는 양식을 취하거나 거주분열을 택한다. 전원주택이 입지한 지역은 교통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므로 통학하는 어린 자녀를 둔 가구는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는 양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근과 통학의 연계와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은 도시탈출 이주자들이 “친밀한” 가정생활(intense domesticity) 또는 “가족주의(familism)”<sup>5)</sup>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가족주의적 성향은 통근통학양식에서 잘 드러난다.

통근통학분리형은 교외나 시골로 이주한 이후에도 중심도시에 거주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근통학양식을 보이는 경우, 직장이나 학교를 이전하고 통근과 통학을 분리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 4. 결론

도시탈출 이주자는 거주양식, 통근통학양식 등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적응양식을 모색하게 되며,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첫째, 거주양식에서 도시탈출 이주자는 “도시 세컨드홈을 통한 가족의 거주분열”이라는 특징적인 양식을 보이며, 이는 도시탈출로 인하여 분리해진 도시와의 연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응양식이라 할 수 있다. 도시탈출 이주자의 주택은 전원적 환경, 즉 도시적 환경을 벗어난 지역,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분리한 지역, 도시편익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입지한다. 도시탈출 이주자들은 도시생활양식을 버리고 농촌생활양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공유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찾으려 한다.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공유하려는 욕구는 전원주택의 입지적 속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딜레마에 직면한다. 무엇보다도 양자는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서 획득되기 어려운 모순된 측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도시 세컨드홈을 통한 가족의 거주분열인 것이다.

둘째, 도시탈출 이주자는 통근통학양식에서도 도시인과 차별적인 속성을 보인다. 즉 전원주거에서 도시직장으로 통근하는 도시탈출 이주자들 가운데 일부는 가구주의 통근과 자녀의 통학을 연계하는 형태의 통근통학양식을 보인다. 도시탈출을 감행하는 자들은 대개 도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개방공간이 많은 곳에 살고 싶어하며, 그리고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요구되는 비용과 불편

함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교외나 시골은 중심도시에 대한 접근성과 교통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이며 이와 같은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는 양식이 나타난다.

셋째, 거주양식 및 통근통학양식의 측면에서 도시탈출 이주자는 통근통학연계형, 거주분열형, 통근통학분리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도시에서는 통근과 통학을 분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겠으나, 도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분리해지고 이처럼 분리해진 도시와의 접근성으로 인하여 도시탈출 이주자들은 불가피하게 통근과 통학을 연계하거나 거주분열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하여 도시탈출은 이주자의 거주와 노동, 거주와 교육을 연계하는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궁극적으로 이들은 거주분열, 통근과 통학의 연계 등을 통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상이한 생활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교외화, 탈도시화로 중심도시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은 점차 도시화되어 갈 것이고, 그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공간은 소멸되어 갈 것이다. 맑은 공기에 대한 권리는 자연재로서의 맑은 공기가 소멸되고 그것이 상품의 지위로 옮겨감을 의미하듯이(이상률(역), 1993, 68),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자연재로서의 쾌적한 환경이 소멸되고 그것이 상품의 지위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도시인들은 도시생활양식과 농촌생활양식을 동시에 향유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로부터 더욱 멀리 이주해야 할 것이고 더욱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 註

- 1) Brunet(1978: 1980)는 캐나다 퀘벡의 탈도시민에 관한 논문에서 도시탈출(L'Exode urbain, urban exodus) 개념을 농촌탈출(rural exodus)과 대비하여, “도시인이 완전히 농촌적인 환경에 거주를 정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는 도시탈출 개념을 도시인이 중심도시를 벗어나 교외나 시골로 이주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Vidal de la Blache가 1911년 “인문지리학에서의 생활양식”이라는 논문을 쓴 이래로 생활양식 개념은 아무런 비판적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Emmanuel de Martonne가 Vidal의 저작을 편집한 *Principes de Géographie Humaine*에서도 체계적인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 않았다(Sorre, 1948, 97).
- 3) 인간거주지로서의 환경 개념 및 지역간의 유통과 기능적 연계를 설명하는 순환 개념에 대해서는 鄭甲(譯)(1948)을 참조하라.
  - 4) Pierre Bourdieu는 계급과 생활양식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아비투스(habitus)’ 개념으로 담아냈다.
  - 5) 교외화와 가족생활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domesticity)는 대개 비슷한 시기(19세기 중엽)에 출현했으며 양자 모두 도시화 현상 및 상업·공업경제의 발달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될 수 있다(Marsh, 1990, xi).

## 文 獻

- 구동회, 1997, “중산층의 도시탈출(urban exodus)과 전원담론,” 문화과학, 13(겨울호), 263-276.
- \_\_\_\_\_, 1998,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 - 수도권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金在完, 1996, “엘리제 르클뤼思想和 그의 韓國에 대한 記述,” 문화역사지리, 제8호,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123-146.
- 박영한·구동회(역), 2000, 부르주아 유토피아 - 교외의 사회사 -, 한울 (Fishman, R., 1987, *Bourgeois Utopias: the rise and fall of suburbia*, Basic Books).
- 박영한·안영진(역), 1998, 사회지리학 - 사회공간 이론과 지역계획의 기초 -, 범문사(Maier, et al., 1977, *Sozialgeographie*, Georg Westermann Verlag).
- 백옥인(역), 1994, 생활양식론, 민글(成瀨龍夫, 1988, 生活樣式の經濟理論, 御茶の水書房).
- 백옥인, 1991, “階級·階層別 生活樣式,” 서울대학교 社會學研究會 編, 社會階層 - 理論과 實際 -, 茶山出版社, 550-566.
- 여성희·임병기·박연숙, 2000, 12, “수도권지역 전원주택단지현황 총분석,” 전원 속의 내집, 주택문화사, 123-131.
- 柳佑益, 1988, “농어촌지역하위중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6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샵,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99-116.
- 이상률(역), 1993, 소비의 사회 - 그 신화와 구조 -, 文藝出版社(Baudrillard, J.,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 鄭甲(譯), 1948, 人文地理學, 研教社 (Vidal de la Blache, P., 1922, *Principes de Géographie Humaine*).
- 정태환·한상근(역), 1995, 현대의 계급론, 한울 아카데미(Crompton, R., 1993, *Class and Stratification: An Introduction to Current Debates*, Polity Press).
- ニューハビテーション研究會, 1989, 脱大都市居住のすすめ - 見えてきたニューハビテーション -, ケイブン出版.
- Alexander, C., et al., 1977, *A Patter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er, B., 1960, *Working Class Suburb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_\_\_\_\_, 1968, Myths of American suburbia, in R. E. Pahl(ed.), *Readings in Urban Sociology*, Pergamon Press, Oxford, 119-135.
- Brunet, Y., 1978, L'Exode urbain, quelques hypothèses appuyées sur le cas des Cantons de l'Est, Université de Montreal, Département de géographie, *Notes et Documents*, 78-2.
- \_\_\_\_\_, 1980, L'Exode urbain, essai de classification de la population exurbaine de Cantons de l'Est, *Canadian Geographer*, 24(4), 385-405.
- Gans, H., 1962, Urbanism and suburbanism as ways of life: a re-evaluation of definitions, in A. Rose(ed.),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 Houghton Mifflin, Boston, 625-648.
- \_\_\_\_\_, 1968, *People and Plans: Essays on Urban Problems and Solutions*, Basic Books, New York.
- Harvey, D., 1989, *The Urban Experience*, Basil Blackwell, Oxford.
- Jones, H., et al., 1984, Counter-urbanization in societal context: long distance migration to the Highlands and Islands of Scotland, *Professional Geographer*, 36(4), 437-444.
- Leng, G., 1973, Zur 'Münchner' Konzeption der Sozialgeographie, *Geographische Zeitschrift*.
- Lundberg, G., et al., 1934, *Leisure: A suburban study*.
- Marsh, M., 1990, *Suburban Lives*, Rutgers Univ. Press.
- Sexton, R., 1995, *Parallel Utopias*, Chronicle Books, San Francisco.
- Sorre, M., 1948, La notion de genre de vie et sa valeur actuelle (Deuxième article), *Annales de*

*Géographie*, 57(307), 193-204.

Vidal de la Blache, P., 1911, Les genres de vie dans la géographie humaine (Premier article), *Annales de Géographie*, 20(111), 193-212.

\_\_\_\_\_, 1911, Les genres de vie dans la géographie humaine (Deuxième article),

*Annales de Géographie*, 20(112), 289-304.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 1-24.

최초투고일 04. 01. 07

최종접수일 04. 02. 26